

2023-12-04 (2023-44호)

12월 04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작년 말과 같은 점과 다른 점

서울, 12월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와 주로 연동되면서도 역내 수급 상황 따라 잦은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5-1,315원이다.

미국 통화긴축 종료를 넘어 내년 5월까지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하는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도 비슷한 정책 경로를 타는 데다 미국 경기를 두고 시장의 명쾌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지 않는 국 면 속에서 글로벌 달러가 추세를 굳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울러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재빨리 반영한 측면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주 나올 경제 지표 결과 따라 달러는 오락가락 반응을 보일 여지가 있다.

주중에는 미국 11월 서비스업 지표와 고용 관련 지표가 핵심 변수로 꼽힐 만하다.

한편, 달러/원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 방향을 따르면서도 장중 유독 변동폭을 키우고는 한다. 물론 위안 영향을 받지만서도 이보다는 실수급 처리 위주로 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힘이 보다 실린다. 전체적으로는 양방향 수급이지만 그때그때 처리되는 물량 따라 환율이 출렁이는 흐름은 이번 주에도 그리고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작년 말과 유사하게 달러/원 상단이 눌리지만, 중국발 호재가 뒷받침되지 않는 데다 투자심리가 뚜렷하게 리스크 온 쪽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달러/원의 하방경직성이 여전히 단단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변동성을 수반한 달러/원 박스권 장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금주에는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와 중국 수출입 지표, 호주와 캐나다 금리 결정 등이 있다. 한편, 국내로는 11월 말 외환보유액, 10월 국제수지(잠정)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2월4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전망 보고서 BOX 2 : 최근 수출 개선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12:00)
- ⊙ 기획재정부: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14:00)

12월5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11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통계청: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08:00)

12월6일(수)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보험사 CEO 간담회 (09:30)

12월7일(목)

- ⊙ 금융감독원: 2023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 KDI: KDI 경제동향(2023. 12) (12:00)
- ⊙ 한국은행: 총재 북경사무소 개소 20주년 기념식 (북경)

12월8일(금)

- ⊙ 한국은행: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11: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 (1: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2월04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2월2-9일		미국	자동차판매	11월		3.100M
12월4일	18:30	유로존	센틱스지수	12월	-16.4	-18.6
12월5일	00: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10월		-5.4%
12월5일	08:30	일본	도쿄 CPI	11월		3.3%
12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1월		50.4
12월5일	19: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10월	0.2%	0.5%
12월5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11월		50.8
12월6일	00: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11월	52.0	51.8
12월6일	00:00	미국	JOLTS 구인건수	10월	9.350M	9.553M
12월6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12월		6
12월6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10월	0.2%	-0.3%
12월6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2월1일주간		176.1
12월6일	22:15	미국	ADP 전국고용	11월	128k	113k
12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1월		1,238.0B
12월7일		중국	수출 YY	11월		-6.4%
12월7일		중국	수입 YY	11월		3.0%
12월7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10월		0.1
12월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10월		-0.3
12월7일	19:00	유로존	GDP 수정치 QQ	3분기	-0.1%	-0.1%
12월7일	21: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11월		36.836k
12월7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27일주간	223k	218k
12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11월		3.101T
12월8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10월	9.00B	9.06B
12월8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11월		2.8%
12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10월	1901.2B	2,723.6B
12월8일	08:50	일본	GDP 수정치 QQ 연율	3분기		-2.1%
12월8일	22: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11월	180k	150k
12월9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12월	62.0	61.3
12월9일	10:30	중국	PPI YY	11월		-2.6%
12월9일	10:30	중국	CPI YY	11월		-0.2%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2월5일 (화)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후 12시30분)

12월6일 (수)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7일 오전 0시)

12월7일 (목)

⊙ 유로그룹 회의..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참석

▶ 주간 세계 5대 이슈

⊙ 일찍 찾아온 산타

11월 글로벌 증시가 3년 만의 최고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글로벌 투자등급 채권 수익률이 거의 4%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에 크리스마스가 일찍 찾아왔다.

시장이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시장의 들뜬 분위기가 금융 여건을 완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반발하기 시작할 수 있다.

내년에 주식과 채권이 동반 상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주가는 낮은 차입 비용과 꾸준한 성장이라는 우호적인 경제 시나리오에서 상승한다. 불황기에 빛을 발하는 국채는 이전 금리 인상의 영향이 고통을 유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곤 한다.

둘 다 옳을 수는 없다.

⊙ 美 월간 고용지표

골디락스는 계속 유지될까? S&P500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나올 미국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며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탄력적인 성장에 대한 소위 골디락스 스토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수치가 너무 강하면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약화되어 4분기 주식과 채권 랠리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수치가 약하게 나오면 총 525bp의 금리 인상 이후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위험 선호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가 11월에 18만명의 일자리를 추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10월에는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 호주 매파적 동결?

예상보다 낮은 호주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호주 중앙은행이 5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에 종지

부를 찍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물가가 여전히 높고 신임 미셸 불록 총재가 전임 총재보다 매파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여 매파적 동결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현재 2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5일 발표될 도쿄 CPI 데이터에서 일본은행이 얼마나 빨리 긴축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6일과 8일에 발표되는 단칸 기업심리 서베이와 GDP 데이터를 통해 기업과 경제가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해질 것이다.

⊙ 독일·네덜란드의 혼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치적 혼란에 이어 독일과 네덜란드의 격변이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

독일은 내년 예산안에서 170억유로의 구멍이 생겼고, 재정 조정으로 인해 경제가 2년 연속 수축세를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극우 반유럽연합(EU) 성향의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선거에서 깜짝 승리를 거둔 후 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7~8일에는 4년 만에 열리는 EU-중국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 신흥국 투자

신흥국 투자는 때때로 호랑이를 타는 것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호랑이를 타는 동안은 매우 즐겁지만 내릴 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은 확실히 즐거운 시기였다. 신흥국 주식.MSCIEF은 7.5% 상승하며 1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냈다. 현지 통화와 달러 표시 채권 모두 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스라엘 셰켈 가치가 10% 반등하고 중부 유럽 통화들이 5~6% 상승하면서 MSCI의 신흥국 통화 지수 .MIEM00000CUS는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록상 12월도 대체로 양호했다. 신흥국 통화 지수는 2015년 하락 이후 매년 12월에 상승세를 나타냈고, 주식시장은 지난 4년간 3번은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다.

물론 채권 수익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많은 대형 투자회사들이 다시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 - 본질 퇴색한 한은 총재의 구두 점도표, 고쳐쓰거나 보내주거나 해야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12월1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2022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두 점도표를 깜짝 공개했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분포를 구두로나마 밝힌 건 역사상 처음이었던 만큼 첫 공개 당시엔 '신선하다',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투명해졌다' 등 긍정적 평가가 적지 않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참여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도표 형식으로 구체화해 정리한 점도표(Dot plot)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속내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지난 1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구두 점도표는 국내 통화긴축이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시장의 기대 수준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최종금리로 3.75%를 제시했던 금통위원은 3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3.50%를 제시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음을 보여주는 분포였는데 이는 추가 긴축을 배제하지 말라는 통화당국의 시그널로도 읽혔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글로벌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진 지난 4월 금통위때 최종금리로 3.50%를 제시한 위원은 1명으로 줄었고 나머지 5명은 3.75%를 제시했다.

3.5% 수준에 기준금리가 동결된 지 4개월이 흐른 5월부터는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 전망이 3.75%로 고정돼 바뀌지 않았다. 6월(2.7%)과 7월(2.3%) 두 달 연속 2%대를 찍은 국내 물가상승률 지표를 확인하고 열렸던 7월에도,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대내외 금리가 폭등하고 원화 약세폭이 심화됐던 10월에도 금통위원들은 3.75% 최종금리 수준을 고수했다.

금통위 입장에서선 1월에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3.5%까지 올려 놓은 후부터 '당분간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자'고 하고 싶었을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책 선택지를 스스로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이 3.5%로 통일되는 순간 시장 참가자들이 통화긴축 종료를 넘어 '인하 사이클 시작'이라며 설레발을 치는 건 경계했을 것이다. 다만 금통위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구두 점도표에 점도표를 찍지 않고 시장 관리에 방점을 찍으면서 구두 점도표는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능하게 됐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금리 방향에 대한 인식이 어찌면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총재는 지난 7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구두 점도표를 금통위원들의 약속도 의지도 아닌 가능성의 영역으로 봐달라며 부실한 포워드 가이드스 논란 진화에 나섰다.

다만 구두 점도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냐며 위원들의 최종금리 견해는 계속 공표했다.

▲ 행동 아닌 말로 떼우려는 금통위, 구두 점도표 미래 고민해야

이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열달 동안 일곱 차례 동결되는 과정에 위원들의 최종금리 수준이

3.75%에 고정돼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짚고 가야 할 듯하다.

이 총재는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네 명의 위원이 여전히 3.75%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두 위원은 최종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마다 최종금리를 판단하는 전제의 조건이 다르다 보니 같은 수준을 제시했어도 통화정책과 관련한 입장에선 큰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1월 금통위 회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대로라면 금통위원 여섯 명이 모두 기준금리 동결을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를 지켜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어떤 위원은 10% 정도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1.9%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위원도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4명의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3.5% 수준에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뭔가 금리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도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게 3.75% 최종금리 점도표의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2명의 금통위원들이 최종금리 수준을 3.5%로 밝혔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는 현재 이 2명의 금통위원들도 기준금리 3.5% 수준에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나중에 뭔가 금리 결정이 이뤄진다면 그래도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다.

금통위원들이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본다면 10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의 귀결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만 있는 게 아니고 동결도 있다며 이같은 해석을 일축했다.

어쩌란 말인가? 그런 논리라면 최종금리를 3.75%로 두고 7회 연속 금리동결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총재가 취임후 통화정책 관련 자신의 언급을 손바닥 뒤집듯 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분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구두 점도표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시그널로 기능하기보다는 시장의 설레발 방지용 엄포 수단으로 변질됐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과연 향후 도래할 가능성이 큰 금리인하 사이클에서 최종금리 구두 점도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대내외 경제의 향방이 마치 큰 배가 움직이듯 서서히 변한다면 모르지만, 급격한 통화정책 기조 전

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구두 점도표는 금통위원들의 유연한 반응을 어렵게 하는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 금통위가 그동안 행동이 아니라 말로만 떼우려다 보니 구두 점도표의 본래 의미가 퇴색한 건 사실이다.

이제라도 구두 점도표를 제대로 고쳐 쓰려는 노력을 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주는 게 옳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일 듯하다.

(편집 문윤아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그래프/분석) - 美 채권 투자자들, 2024년 연준 금리 인하에 대비하다

뉴욕, 12월1일 (로이터) -

미국 경제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내년 상반기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성장 전망 약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인플레이션 측면의 진전이 통화정책 완화로 전환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연준은 정책 전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10월 PCE 물가지수 전년비 상승률은 3.0%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 전망에 부합했으나 전월 3.4%보다 둔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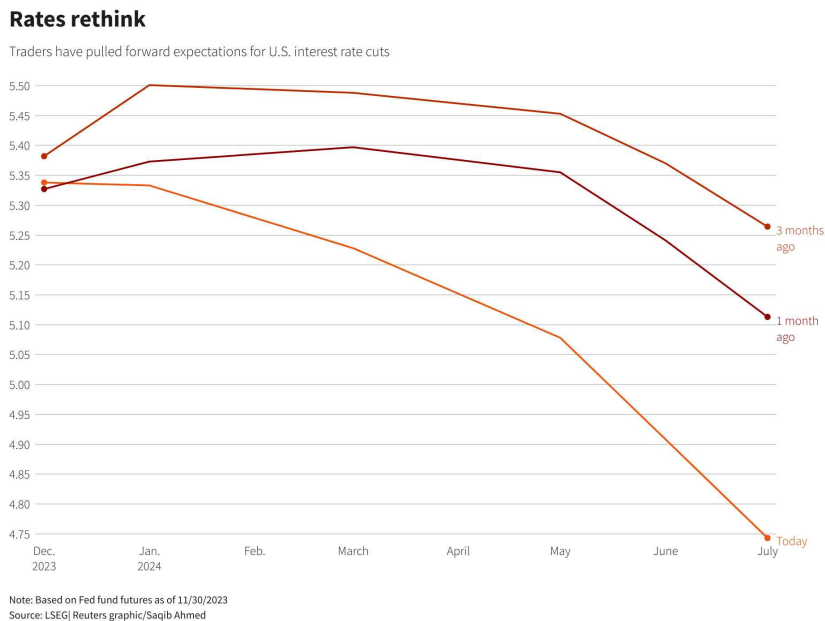
이번 주 초 매파적 인물로 꼽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수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레이더들의 자신감은 강화됐다.

시장은 12월1일 애틀랜타 스펠만 대학에서 열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월러 이사의 발언을 재확인할지 아니면 반박할지 주목할 것이다.

이제 연준 정책 전환 기대감이 채권과 자금 시장의 여러 구석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연방기금 금리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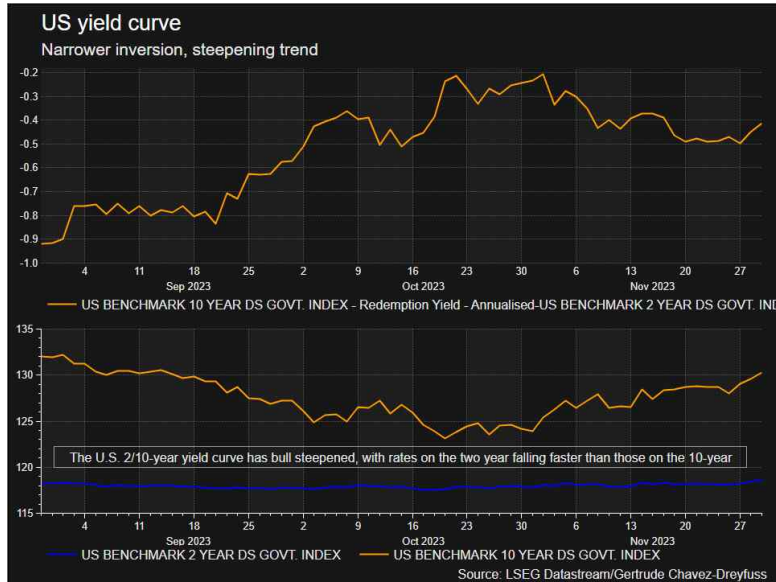
연방기금 금리선물은 트레이더들이 향후 연준의 정책금리가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척도이다. 30일 CME 페드워치 톨에 따르면 시장은 2024년 3월19~20일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약 45%로 반영했으며, 4월30일~5월1일 회의에서는 이 수치가 약 75%까지 상승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금리 시장은 2024년 말까지 약 100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 수익률 곡선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격차를 측정하는 현재 수익률 곡선은 지난 몇 주 동안 역전폭이 좁혀졌다. 수익률 곡선의 이 부분이 역전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1~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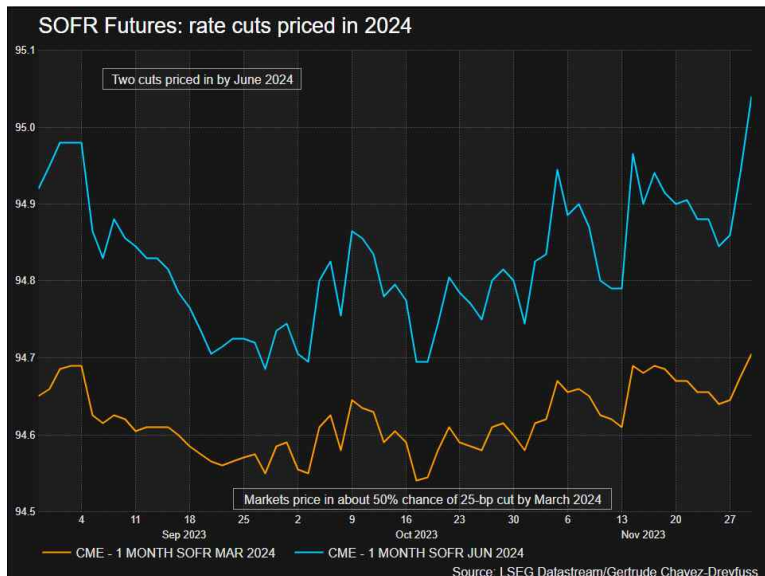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몇 주 동안의 수익률 곡선 움직임을 '불 스티프너'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기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시나리오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될 때 종종 발생한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 SOFR 선물

채권 투자자들은 또한 연준 금리 변동에 대한 기대치를 측정하기 위해 SOFR 선물을 살펴본다. 2024년 3월 SOFR 선물은 연준이 내년 3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50%로 반영했다.

2024년 6월 SOFR 선물은 연준이 최소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반영했는데, 두 차례 25bp 인하할 확률은 76%로 반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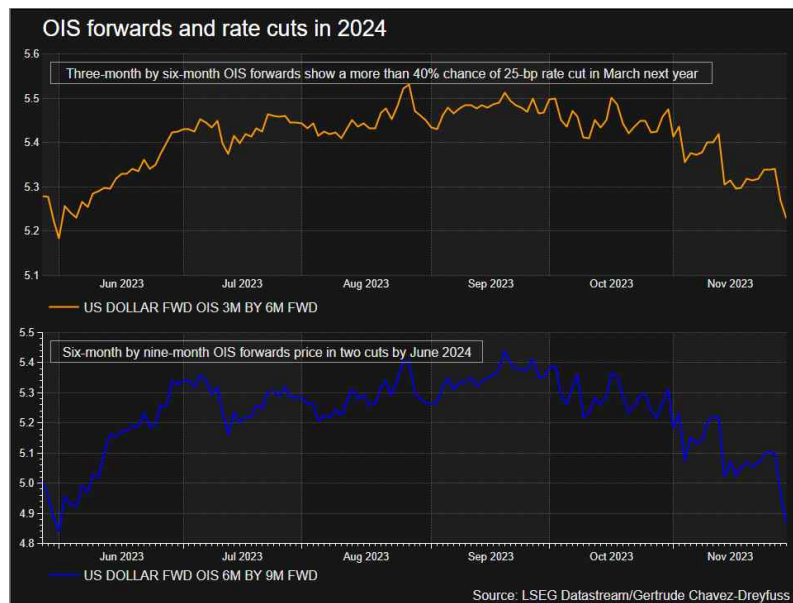


◆ OIS 선물

트레이더의 금리 기대치를 보여주는 채권 시장의 또 다른 수단인 OIS 선물 시장은 연준이 내년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OIS 거래는 연방기금금리와 같은 오버나이트 금리를 고정 금리와 교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2년 만기 OIS 거래에서 한 당사자는 향후 2년 동안 매일 연방기금 금리를 지불하는 대가로 2년 고정 금리를 받는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3개월/6개월 OIS 선물은 연준이 내년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4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다. 6개월/9개월 OIS 장기물은 6월까지 최소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내년 중반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78%로 각각 반영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①) - 연준 피벗 기대 속 무거운 흐름 이어질 듯... 추세 하락은 '아직'

서울, 12월1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지난달 1년 만의 월간 최대폭 하락했던 달러/원 환율은 12월에도 무거운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르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68.6-1,320.5원으로 제시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부각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 하락에 지난 11월 달러/원 환율은 60원 넘게 하락하며 2022년 11월 이후 1년 만의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12월에도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면서 달러/원이 무거운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수출 개선세와 연말 네고 물량 등 수급 기대 역시 달러/원 상단을 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달러/원 추세적 하락보다는 낙폭이 제한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연준 금리 인하 시기 등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나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에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달러/원 환율이 단기간 급하게 내려온 만큼 향후 달러 강세를 자극할 만한 이벤트나 경제지표가 나올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부장	1,284	1,320
우리은행	박범석 과장	1,260	1,320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280	1,320
DGB대구은행	이응주 차장	1,270	1,320
IBK기업은행	임기묵 차장	1,250	1,320
KDB산업은행	임준영 과장	1,270	1,320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270	1,31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280	1,305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272	1,330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250	1,340
평균		1,268.6	1,320.5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①) - 연준 피벗 기대 속 무거운 흐름 이어질 듯... 추세 하락은 '아직'

서울, 12월1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지난달 1년 만의 월간 최대폭 하락했던 달러/원 환율은 12월에도 무거운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이르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68.6-1,320.5원으로 제시됐다.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김장욱 팀장 (신한은행)

"연준 금리 인하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하락하고, 중국의 경기 관리에 위안도 지지받고 있어 달러/원은 밀릴 여건이지만 펀더멘털과 함께 수급 여건이 아직 환율 하락을 이끌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환율의 하락 시도에도 하단이 막히면서 오히려 환율은 제한적인 반등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예상 거래범위 1,284-1,320원

▲ 박범석 과장 (우리은행)

"미국 재무부 장기 국채발행 축소와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겹치며 10년물 국채금리가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달러는 약세 트렌드로 전환되었고 연말을 맞이해 수급 상 네고 우위에 달러/원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속적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환율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거래범위 1,260-1,320원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연말 장세로 접어들면서 역외의 적극적인 포지셔닝이 자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전망이 중기적으로는 비둘기적으로 갈 것으로 보여 달러/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수급 처리 위주의 장세 속 연말로 갈수록 수출업체들의 원화수요 역시 상단을 제한하며 1320~30밴드의 저항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달러/원 하단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업체 수요로 이달 레인지 장세가 예상된다."

- 예상 거래범위 1,280-1,320원

▲ 이용주 차장 (DGB대구은행)

"연말 달러 공급 주체도 있고, 중앙은행의 매파적 톤 유지에도 시장이 금리인하를 앞서 반영하고 이에 달러가 방향을 틀면서 환율은 전반적으로 무거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달러의 추세적 약세를 예상하기보다는 구조적, 추세적인 강달러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고 본다."

- 예상 거래범위 1,280-1,320원

▲ 임기목 차장(IBK기업은행)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산타 랠리 기대감에 달러 인덱스는 아래쪽일 수 있는데 이에 리스크 온 더해지면 달러/원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급하게 내려온 경향도 있어 향후 나오는 경제지표나 이벤트가 달러 강세 쪽으로 나오면 변동성이 커질 여지는 있다."

- 예상 거래범위 1,250-1,320원

▲ 임준영 과장(KDB산업은행)

"연준 금리 인상 종료 및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프라이싱하며 환율이 내려온 상태이나, 여전히 인하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환율 재차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연준의 피벗 기대는 상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개선 등 수급적으로도 꾸준히 네고가 출회되고 있는 점은 환율 상단을 무겁게한다. 환율은 높은 변동성 지속하며 1300원 내외 등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 예상 거래범위 1,270-1,320원

▲ 오창섭 연구원(현대차증권)

"최근 주요 시장지표들이 급등락하면서 시장조정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으로 추세국면 조정에 따른 횡보국면 예상된다. 그러나 채권금리 하락과 함께 주가지수 상승 및 달러화 약세가 전개되는 점은 전형적인 위험자산 선호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달러/원 환율은 1200원대에 안착하는 가운데 연말 장세 진입 및 단기간 환율 급락에 따른 조정장세 가능성 주목한다."

- 예상 거래범위 1,270-1,310원

▲ 김유미 연구원(키움증권)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지만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의 추가 하락이 제한되면서 달러/원 환율도 130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거래범위 1,280-1,305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연준의 마지막 금리인상이 지난 7월인 것으로 보이고 12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이며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낼 것이지만 최근의 지표 둔화와 물가 하락세를 고려할 때 그동안 이어져온 달러 강세는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채 시장에 그동안 금리 추가 상승을 두려워하던 실수요가 유입되는 것이 목격되었고 동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기금리는 펀더멘털에 맞춰서 하방압력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부채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일부 오해해 기인한 것도 있는 만큼 향후 부채에 대한 우려로 금리와 달러가 급등하는 위험은 상당부분 경감됐다. 12월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연말 쇼핑시즌의 소비 실적에 따라 달러의 방향이 좌우될 것이며 BoJ등의 깜짝 긴축 정책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 예상 거래범위 1,272-1,330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국내 펀더멘털 개선 속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를 예상한다. 분위기는 원화에 우호적이다.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여전하다. 국제유가가 80달러를 하회하며 겨울철 에너지 수입에 따른 부담도 경감됐다. 다만 국내 수출 펀더멘털 개선 폭이 크지 않은 점, 이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 레벨에서 환율의 추가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한 달간 이미 달러는 4%가량 약세가 진행된 만큼 향후 추가 달러 약세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예상 거래범위 1,250-1,340원

((Yena.Park.thomsonreuters.com; 82-2-3704-5671;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 @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환당국, 2월부터 특정일 정해 새벽 두시까지 RFI와 실거래 테스트할 계획

서울, 11월30일 (로이터) -

외환당국과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은 29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시장참가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표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 중 향후 시범운용 계획, 거래일·결제일 기준 통일 여부, NDF 포지션을 포함한 RFI 보고 및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 등에 대해 국내외국환은행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당초 사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RFI)은 시범운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 외환당국은 2월부터는 월 2회 정도 특정일을 정해 당국에 제출한 사전 시나리오대로 RFI와 국내외국환은행들이 익일 2시까지 실거래를 테스트해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부터 결제까지 일련의 모든 거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확인해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외은 지점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됐던 RFI의 NDF 포지션 보고와 관련해서는 당국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이와 관련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익일 2시로 연장될 경우 거래일과 결제일 기준을 서로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관별로 입장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개장시간 중 외환거래를 모두 당일 거래로 인식할 경우 회계기준에 부합한지 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또는 모든 기관들이 동일한 기준을 가져갈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당국은 익일 2시까지 외환거래를 당일(T) 거래로 인식하는 데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가급적이면 거래일과 회계처리일을 맞추는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당국자는 "거래일과 회계처리일을 맞추는 것을 권고하고,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별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을 우선 제안했다"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MSCI 편입, 우리 목표 전혀 아니다... 은행산업 발전 저해 생각 없어 - 금융위 부위원장

서울, 12월01일 (로이터)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전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의 MSCI 지수 편입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발전이 우리의 목표이며 MSCI 편입은 중간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지만 꼭 해야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의 장점을 당연히 알지만 불법 공매도가 가장 큰 이슈"라며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면 당연히 금지하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선진화가 안됐으니 불법 공매도가 많이 있었고 이제 이것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에 주가를 한 번 정도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었다"며 "우리는 최소 경제성장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생각보다 더 만연해 있다며 공매도 재개 여부는 내년 6월까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압박이 이들 기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은행 이익이 많이 난 건 독과점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은행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은행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독점력을 사용해서 하지 말고 해외로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ELS 원금손실 문제가 불거진 후 수탁판매사들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잘못 판 부분인데 정말 불완전판매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ELS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 가능하면 일반투자자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승규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